

#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 디자인의 특성

부산경상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겸임교수 공 미 선

目 次	
I. 서 론	IV.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특성
II. 오프 꾸뛰르의 세계	1. 표현의 특성
1. 오프 꾸뛰르의 의의	2. 형태의 특성
2. 오프 꾸뛰르의 배경과 흐름	V. 결 론
III.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조형미	참고문헌
1. 발상과 표현의 예술성	ABSTRACT
2. 디자인 방법과 테크닉의 강조	

## I. 서 론

최근 복식과 예술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2)·3)</sup>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복식과 예술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서 많은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오프 꾸뛰르는 보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의 상 즉 아트 투 웨어(Art to wear)<sup>4)</sup>와는 다르며 디자이너의 예술성을 입는 옷으로 표현하는 예술성과 기능성이 잘 조화된 고도의 테크닉(Technic)과 기술이 요구되는 창작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1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프 꾸뛰르, 그 디자인 세계는 이제 메종의 후예들에 의해서 그들의 컬렉션으로 찬사와 혹평을 받기도 하는데, 그것은

디자이너의 조형적인 개성과 시대성, 전수된 메종의 디자인 컨셉(Concept)의 이미지 압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프 꾸뛰르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 세계의 고찰을 통하여 그 디자인 세계의 특성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디자인의 상태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디자인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것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참된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기 자기 고유의 특이한 배경으로부터 디자인의 일반적 이해에 접근한다.<sup>5)</sup> 또한 부수적으로 단순히 쇼라는 의미의 컬렉션보다 디자인 측면에서의 컬렉션 개념의 이해와 디자인 컨셉 추출 및 여러 가지 창의

1)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 디자인", 가정 학회지, Vol. 27-2, 1989.

2) 이인성,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창작과 예술", 한국 의류 학회지, Vol. 20-1, 1996.

3) 장동림, "초현실주의 예술의 조형성과 Schiaparelli의 의상 디자인", 대한가정 학회지, Vol. 28-2, 1990.

4) 최은정, "현대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p.3.

5) Bryan Lawson, 윤장섭역, 「디자이너의 사고 방법」, 서울 : 기문당, 1988, p.34.

적인 디자인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근래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디자인에 있어 표현의 특성과 아울러 특히 창작디자인에 다양한 개인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형태를 중심으로 각 디자이너의 개성적인 조형원리를 고찰하여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인 배경은 서적, 논문 등을 참고로 하였고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조형성 고찰은 콜렉션 전문 잡지인 *Collezioni*, *Book Moda*를 활용하였다. 콜렉션은 *Vogue*, *Bazarr*, *Elle* 등을 통해서도 소개되지만 *Collezioni*와 *Book Moda*는 각 메종의 디자인 컨셉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한 디자인 위주의 잡지이며 각 메종의 디자인 컨셉이나 트렌드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되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 유용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탈리아 중북부 Modena에서 출간되는 *Collizioni*는 *Donna*, *Uomo*, *Bambino*, *Tessuto*, *Accessori*(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직물, 악세서리)등으로 구분되어 출간되며 밀라노에서 출간되는 *Book Moda*는 패션사설, 디자이너 스토리, 인터뷰 등이 더 보완되어 있고 메종의 일러스트레이터나 잡지사 일러스트레이터에 의해서 메종의 대표적인 디자인의 일러스트레이션이 콜렉션 앞부분에 소개된다.

그리고 오랜 역사의 오프 꾸뛰르 메종은 여러 주임 디자이너에 의해 승계되고 있으므로 같은 메종의 컨셉을 표현하는 개인차 때문에 1990년~1997년도로 시기를 국한하고자 하며 이 시기에 지속적으로 콜렉션을 발표한 파리 18명, 로마 10명의 디자이너를 고찰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간헐적으로 콜렉션을 발표한 파리의 8명, 로마의 22명의

디자이너는 제외하였다. '96, '97 이후 주임 디자이너가 John Galiano로 교체된 Dior, Alexander McQueen으로 바뀐 Givenchy, Ferregamo가 영입된 Ungaro 등의 메종은 이전의 주임 디자이너에 의한 콜렉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파리 : Andre Odicini, Chanel,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Emanuel Ungaro, Givenchy, Hanae Mori, Jean Luis Scherrer, Jean Paul Gautier, Lapidus, Luis Feraud, Nina Ricci, Pierre Balmain, Thierry Mugler, Torrente, Valentino Couture, Versace Aterier, Yves Saint Laurent

로마 : Andre Laug, Fausto Sarli, Furstenberg Couture, Gai Mattiolo, Gattinoni, Lancetti, Lorenzo Riva, Raffaella Curel, Renato Bal-  
estra, Rocco Barocco

## II. 오프 꾸뛰르의 세계

### 1. 오프 꾸뛰르의 의미

현대 패션은 시간이나 지역 격차의 획일화를 보이며 세계 각국에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도쿄는 패션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프 꾸뛰르는 가격과 기술, 고객층, 독창적인 분위기 등과 함께 컨펙션(Confection)<sup>6)</sup>과 차별화 되는 특성<sup>7)</sup>으로 파리와 로마가 그 권위와 명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고급 의상점이라 일컬어지는 오프 꾸뛰르는 독창적인 콜렉션을 발표하고 이를 개성적인 맞춤의 방식을 기초로 하여 다시 재생산(Firm)하는 집단들<sup>8)</sup>을 의미하며 파리에서는 오프 꾸뛰르, 이탈리아

6)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패션의 역사」, 서울 : 도서 출판, 1994, p.16.

컨펙션 : 여성의 기성복, 고급 기성복인 프레파·포르테에 대해 대중적인 기성복을 말한다.

7)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서문.

8)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1, p. 178.

아에서는 알타 모다(Alta Moda)라고 불리워지는 하이 패션이다.

초기 오프 꾸뛰르는 귀족문화가 유산 계급화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산물로써<sup>9)</sup> 과거의 형식에 치우친 의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 의상의 민주화를 시도하였다. 오프 꾸뛰르 기초는 1차대전 이후 정착되었고<sup>10)</sup> 1940~1944년의 전시중의 독일군 점령과 현대사회의 대중으로부터의 고립<sup>11)</sup>이라는 시대적인 경향은 오프 꾸뛰르 위기를 예고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생활의 변화, 여성의 지위 향상, 오프 꾸뛰르 자체의 재검토 등은 1960년 중반 이후 프레따·포르테의 대두라는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1970년대말 Gres를 제외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프레따·포르테 컬렉션을 소개하였고<sup>12)</sup> Cristobal Balenciaga는 그 이후 오프 꾸뛰르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았다.<sup>13)</sup>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는 대부분의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이 프레따·포르테 라인을 만드는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주문복 외 다른 패션상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확장시켰다. 오프 꾸뛰르의 기업화 현상은 오프 꾸뛰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오프 꾸뛰르 메종은 향수, 보석류, 라제리류, 구두, 핸드백, 기타 장식 등에 오프 꾸뛰르 이름을 빌려주고 특허권을 받으며 오프 꾸뛰르 재정을 유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오프 꾸뛰르의 주문생산 보다 더 큰 수입원이 되었다.<sup>14)</sup> 이처럼 오프 꾸뛰르에 대한 권위와 명성은 오프 꾸뛰르의 기업화

와 Christian Dior에 의해 제도화된 특허권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sup>15)</sup> 특히 향수는 오프 꾸뛰르 이미지 보급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sup>16)</sup>

또 디자인 측면에서의 오프 꾸뛰르는 세계패션의 흐름과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 개량해 나가는 아이디어 산실 역할을 하며 프레따·포르테, 라인즈 비스(Lignes bis),<sup>17)</sup> 컨텍션에 있어서 소재, 컬러, 스타일 등에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친다. 오프 꾸뛰르는 완벽하고 개성적인 독특한 라인과 봉제테크닉으로 새로운 형을 창조하여 디자인과 소재 연구, 디자인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Christian Dior 하우스 감독인 Pacgues Rouet는 “오프 꾸뛰르는 우리가 하는 사업을 끌어 올리는 원동력으로 필수 불가결하다”고 하였다.<sup>18)</sup> 오프 꾸뛰르 메종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도 강력한 이미지 보급이 필요하고 이미지 보급은 오프 꾸뛰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패션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오프 꾸뛰르 컬렉션으로 그들의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여 패션 전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2. 오프 꾸뛰르의 배경과 흐름

오프 꾸뛰르는 1858년 프랑스에서 영국인 Chales Fredric Worth (1825~1895)에 의해 전개되었으며, “내가 하는 일은 주문받은대로 이행하는 것만

9) 이호정, 「복식 산업론」, 서울 : 유신 문화사, 1984, p.13.

10) 김은리, “Haute Couture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p.80.

11) 김미옥, “오프 꾸뛰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p.11.

12) Helena, D.P. and C.S Mueller, *Marketing Today's Fashion*, New York : Prentice-Hall, 1980, p.126.

13) 이재창, 「패션 Designer's」, 서울 : 정은 출판사, 1991, Vol. 6, P. 6087.

14) Mary D. Troxell,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 Grow-Hill Book Company, 1976, p.180.

15)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22.

16) Ibid., p.147.

17) Ibid., p.337.

Lignes bis : 프레따 포르테 보급

18)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op. cit., p.184.

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작품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창작이야말로 내 성공의 비결이다”<sup>19)</sup>고 하며 예술로서의 의상을 주창했다.

파리의 오프 꾸뛰르르는 오프 꾸뛰르르 문호를 대중에게 개방한 민주화의 첫 시도로서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출발했으며<sup>20)</sup> 이탈리아의 오프 꾸뛰르라 할 수 있는 알타 모다는 1932년 무솔리니의 예술수공업 산업정책에 의해 일종의 법인체, 협회라고 할 수 있는 엔테 나찌오날레 델라 모다(Ente Nazionale della Moda)가 탄생<sup>21)</sup>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지엽적으로 끝나고 이탈리아의 알타 모다는 1951년 7월 Giovanni Vattista Giorgiani에 의해 피렌체에서 실현되었으며 그후 1967년 로마에 정착되었다.<sup>22)</sup>

오프 꾸뛰르르는 벨 에포크시대(1871-1914), 1차대전 전후시대(1914-1939), 2차대전 전후시대(1939-1950), 1950년 이후에서 현재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sup>23)·24)·25)·26)</sup>

초기 벨 에포크시대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오프 꾸뛰르르 작품들을 선보였고, 여성의상의 현대화 시도에 의의가 있으며 오프 꾸뛰르르 기초를 마련한 시기였다. Paquin, Redfern, Poiret, Vionnet, Jacques Doucet, Rouff 등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Poiret는 20세기에 빼 놓을 수 없는 역사적 디자이너로서 동양취향의 감각을 발휘했고, Vionnet는 바이어스 커트의 창시자로서 화가인 Degas나 Monet의 영향을 받았다.

1차대전 전후 시대는 1925년 75개의 의상이 응용미술 작품회에 참가하였고 세계대전과 전후 경제공황과 1932년 이탈리아의 엔테 나찌오날레 델

라가 탄생하였다. Chanel, Lanvin, Elsa Schiaparelli, Molyneux, Patou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Sorella Fontana, Irene Caltzine, Antonia Maria, Schuberth 등이 활동하였다. Schiaparelli는 초현실주의 모드 디자이너로서 쇼킹핑크의 대명사로 불리어졌으며 Andre Laug가 일했던 Antonelli Maria는 가장 이탈리아적인 아틀리에였다.

2차대전과 전후 시대는 전시의 독일군 점령과 현대사회에서 대중으로부터 오프 꾸뛰르르가 고립 당함으로써 위기적인 상황이 전개되었다. Christian Dior, Christobal Balenciaga, Marc Borhn, Meggy Rouff, Pierre Balmain, Nina Ricci, Roberto Capucci, Jean Desses 등이 있었으며 Roberto Capucci는 살아있는 조형으로서 옷을 디자인한 최초의 디자이너로 이탈리아 알타 모다의 원조였다. Cristobal Balenciaga는 스페인 태생의 디자이너로 테크닉의 완성, 스페인의 엄격함과 프랑스의 세련미가 공존하는 미를 추구했으며 Michel Gomma로 시작하여 현재에 Josephas Melchior Thimister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1950년대는 이탈리아 알타 모다의 현대패션사가 시작되었으며 파리의 기성복 산업이 가속화되었다. Sorella Fontana, Carosa Atelier, Fabiani & Simonetta, Erene Calitzine, Pino Lancetti, Marucelli, Enrico Scheberth, Renato Balestra, Maria Antonelli, Gerumana Marucelli 등이 이탈리아에서 알타 모다를 실현했으며 Antonio Pascali를 위해 일했던 Pino Lancetti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였다. 그러나 이탈리아 디자

19)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22.

20) 김은리, op. cit., p.80.

21)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70.

22) Ibid, pp.70~71.

23) 김은리, op. cit., pp.5~9.

24) 김미옥, op. cit., pp.6~16.

25)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p.20~97.

26) 권혁미, "20세기 MODE의 조형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pp.36~70.

이러한 활발한 활동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탈리아 알타모다는 프랑스 모델의 복사단계를 특징있는 스타일은 없었다.

1960년대는 새로운 세대의 디자이너들이 출현했으며 로마의 꾸뛰르 회사들이 서서히 쇠퇴하였고 Yves Saint Laurent, Pierre Cardin, Valentino가 부각되었고 로마 알타 모다의 절정기였다. 현재 Rocco Barocco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Patrick de Barentzen, 이탈리아 디자이너중 가장 창조성이 풍부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Sarli 등이 활동했다.

1970년대는 파리의 대부분 꾸뛰르들이 프레따·포르테 콜렉션을 소개하였고 패션이 하나의 흐름으로 흐르지 않고 다양한 변화의 개성을 연출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밀라노를 중심으로 프레따·포르테 디자이너들이 활발히 활동했으며 알타모다와 프레따·포르테가 공존하던 시기였고 이탈리아 알타 모다가 점차로 이탈리아적인 라인을 찾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는 새로운 개념으로 오프 꾸뛰르를 받아들였으며 바디중심의 구축적인 스타일과 새로운 꾸뛰르 웨이프(Shape)가 중요시되었다. 파리의 Claudia Montana, Thierry Mugler, Christian Dior의 메종을 맡았던 Gianfranco Ferré등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990년대 이후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는 각각의 특색을 보이며 현대패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파리의 오프 꾸뛰르와 로마의 알타 모다는 발생 시기도 다르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출발했다. 파리의 오프 꾸뛰르는 디자이너들이 패션이라는 예술세계를 파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특혜를 제공하여 파리 지향적<sup>27)</sup>으로 발전했

으며 이탈리아 알타 모다는 이탈리아 산업부흥과 외국에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한 외부 지향적<sup>28)</sup>이라는 발생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 파리는 오프 꾸뛰르에서 프레따·포르테 라인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 알타 모다는 초기 소수의 디자이너 외에 현재로서는 프레따·포르테 디자이너들의 오프 꾸뛰르 참여라는 상반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sup>29)</sup>

또한 현재 파리의 오프 꾸뛰르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Valentino, Versace는 이탈리아 디자이너로 파리 오프 꾸뛰르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체된 많은 외국인 주임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는 메종은 Chanel : Karl Lagerfeld(독일), Christian Dior : Yves Saint Laurent(알제리아) → Marc Bohm → Gianfranco Ferré(이탈리아) → John Galiano(스페인), Lavin : Antonio del Castillo(스위스) → Jules Francois Crahay(벨기에) → Claudia Montana → Dominique Morlotti, Nina Ricci : Jules Francois Crahay(벨기에) → Gerard Pipart → Philp Waghone(영국), Pierre Balmain : Erik Modensen(덴마크) → Herve Pierre(덴마크) → Oscar de la Renta(도미니크 공화국) 등이다.

그리고 1991년~1992년 Autumn/Winter 콜렉션에서의 Rocco Barocco, Mila Schön 등이 로마 알타 모다에서 잠시 외유함으로써 “이탈리아의 진정한 알타 모다가 정립되지 않은 가치로 인하여 외국으로 떠난다.”라고 이탈리아 알타 모다에 대한 자체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다.<sup>30)</sup> 이처럼 파리에서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예술활동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생디카<sup>31)</sup> 즉 파리의

27)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op. cit., p.176.

28) *Fashion*, Edizioni Hennessen Italia s.r.l., N. 1004, 1991, p.102.

29) Ibid, pp.104~109.

30) *Book Moda-Alta Moda*, Agenzia Italiani di s.p.a, 1991-1992, A/W, Editorial.

31)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op. cit., p.223.

상 조합(La sinda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이라는 조직의 역할 때문이다.<sup>32)</sup> 생디카는 1911년 스타일 표절문제를 막기 위해 생겼으며 이 생디카의 역할과 파리라는 배경은 파리가 세계 속의 패션 아이디어 산실로 자리잡게 하는데 공헌하였다.

오프 꾸뛰르 콜렉션은 파리에서는 1월에 춘하 콜렉션이, 7월에는 추동 콜렉션이 열리며 로마에서는 파리보다 일주일 전에 개최된다. 오프 꾸뛰르의 조직은 일반적으로 주임디자이너, 디자이너, 섬유전문가,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모델리스트(Modelist) 등이며 주임디자이너는 여러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메종의 디자인 컨셉으로 정리,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오프 꾸뛰르에 있어서 완벽한 재단과 재봉은 모델리스트의 역할이며,<sup>33)</sup> 스틸리스트(stilist)라고 불리는 디자이너들은 오리지널한 디자인 창조에 힘쓴다. 꾸뛰르계의 피카소라고 칭송받는 Christobal Balenciaga는 재단, 가봉, 바느질을 모두 할 수 있는 디자이너로 인정받기도 하였다.<sup>34)</sup>

또한 그들의 예술성은 패션계의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D'oro(황금 굴무상)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1976년 헬레나 루빈스타인에 의해 수여되어 연 2회(봄, 가을) 수상되며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제 1회 수상자는 1976년 Christian Dior가 1983년, 1988년, 1989년 Pierre Cardin이 1977년, 1979년, 1982년에 3번씩 수상하였다.<sup>35)</sup>

고급스러움, Simplicity, 클래식을 지향하는 Givenchy,<sup>36)</sup> 클래식 엘레강스에 기초를 두고 심플하고 지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모드의 제왕이라고 불리워지는 Yves Saint Laurent<sup>37)</sup> 여성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면서 화려한 관능미를 잘 정리

된 밸런스로 표현하는 Valentino<sup>38)</sup> 그들은 오프 꾸뛰르의 영원한 아름다움의 정수인 심플, 엘레강스, 페미닌을 그들이 가진 독특한 조형미로 표현하고 있으며 근래 오프 꾸뛰르는 Alexander McQueen, Gattinoni, Jean Paul Gautier, John Galliano, Thierry Mugler, 등 역량있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오프 꾸뛰르의 전형적인 조형미와 아방가르드의 복합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 Ⅲ.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조형미

오프 꾸뛰르 디자인은 창작적인 스타일이나 기술에 있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독창성이나 개성이 기성복과 구분됨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성복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의복이기 때문에 디자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를 위한 상품기획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오프 꾸뛰르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독창적인 예술성에 고객이 심취하고 공감하도록 디자인을 창작한다. 오프 꾸뛰르에 있어서 이러한 독창성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존재한 일이 없고 오직 하나라는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가 포함되어 있으며 독창적이라는 것은 창조적 오리지널리티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프 꾸뛰르 메종의 독창성은 그 메종의 주임디자이너의 개성과 시대성, 그리고 전수된 메종의 디자인 컨셉을 가장 정제된 방법으로 강조하면서 예술적인 이미지를 독특한 조형미로 승화시키는 조형예술로서 표현되어 진다.

모든 디자인물은 디자이너가 부여한 조형이미지를 지니고 있듯이 모든 조형작업에는 반드시 이

32)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op. cit., p.176.

33)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25.

34) 가제창, op. cit., Vol. 6, p.6090.

35) Fashion, op. cit., N. 1006, p.46.

36) 가제창, op. cit., Vol. 4, p.4050.

37) Ibid, Vol. 4, p.4008.

38) Ibid, Vol. 2, p.2096.

미지과정과 디자인과정의 두단계를 거친다.<sup>39)</sup> 이러한 두과정은 테마와 테마의 형태적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형의 발견으로 압축할 수 있으며<sup>40)</sup>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특성은 메종의 후예들에 의한 테마의 발상과 표현의 예술성 그리고 그 예술성을 형태화하는 그들의 디자인 방법과 디자인 테크닉의 강조에 의한 독특한 조형미에 있다고 하겠다.

### 1. 발상과 표현의 예술성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옷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오프 꾸뛰르가 예술적인 가치로 평가받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디자인의 근원은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가 인스피레이션(Inspiration)을 낳고 나아가 발상을 얻을 수 있게 된다.<sup>41)</sup> 일반적으로 발상이라는 말은 착상, 고안이라고도 한다. 그 뜻은 일순간에 떠오른 생각 즉 인스피레이션을 의미한다.<sup>42)</sup>

창조적 발상으로 표현된 오프 꾸뛰르의 예술성은 디자인 컨셉으로 표현될 수 있다. 디자인 컨셉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인 발상을 말하며 패션경향을 몇 개의 주제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 측면의 콜렉션은 이러한 주제를 홀뜨려지지 않은 압축된 디자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자인에 있어 표현은 블랙 박스와 글래스 박스적 발상<sup>43)</sup>에서 출발하며, 개인적인 발상과 정확을 중심으로 하는 예술적 표현은 블랙 박스의 방법으로 창조적 비약이 되어 새로운 조형세계가 산출된

다. 오프 꾸뛰르 디자인은 예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박스 발상과 기능성을 고려한 글래스 박스적 발상의 혼합으로 이미지의 형태화 과정에서 상당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창작예술로서의 옷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리고 유사발상이라든지, 역발상, 형태분석법, 체크리스트법(Checklist), 그 외 집단사고법, KJ법<sup>44)</sup> 등의 글래스 박스적인 발상이 디자인 전개에 활용될 수 있으며 그들만의 디자인 전개방법과 디자인 테크닉의 독특한 조형미로 형태화 되어 진다.

발상을 얻을 수 있는 디자인 근원으로서의 이미지는 자연물, 조형원리, 테마, 음악, 물체, 패션필링, 에스닉 문화, 역사 등이며 디자인의 전개는 이러한 이미지의 근원을 주제로 하여 예술적인 형태로 표현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전개에 있어 발상에 의한 주제 표현의 특성을 표현의 종류와 표현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 표현의 종류로는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 패션트랜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것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표현 방법으로는 추상적인 방법(추상, 비구상, 기하학)과 재현적인 방법(자연, 역사)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45)</sup>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은 주제의 이미지나 주제 자체를 직물에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메종의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특정 모티브(Motif)의 직물이나 직물 그 자체가 주제가 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색채의 미술사, 프린트의

39) 임창빈, 김관배, 정도성, "입체디자인에 있어서 이미지 창출 및 전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 논문집, 1990, Vol. 21-2, p.339.

40) 辻弘, 杉山明博, 김인권역, 「조형 형태론」, 서울 : 미진사, 1986, pp.198~199.

41) 이호정, 「복식 디자인」, 서울 : 교학사, 1987, p.268.

42) Loc. cit.

43) 김인권역, op. cit., p.24~25.

44) 이호정, 「복식 디자인」, Loc. cit.

45) 김춘일, 박남일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 미진사, 1991, p.12.

시인, 드레이프의 귀재라 불리는 그림 1-1의 Emanuel Ungaro<sup>46)</sup>는 나비나 꽃 등 자연적인 주제를 직물에 나열하거나 그 이미지의 형태를 면 분할에 적용시켜 재현적인 표현을 한다. 그림 1-2의 Lancetti는 심플한 라인의 형태에 다양한 에스닉 주제의 회화적인 프린트 소재<sup>47)</sup>가 특성이 되어 표현된다.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은 주제를 주로 재단법, 복식의 면 분할, 구성법, 디테일, 트리밍 등을 이용한 평면이나 입체 변형 등의 창의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의 특성이 여러 가지 요소와 다양한 방법의 구조적인 조형미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3의 Christian Dior는 20세

기 모드를 개화시킨 불멸의 스타<sup>48)</sup>로서 현재 주임 디자이너인 Gianfranco Ferré에 의해 섬세하고 기품 있는 Dior의 뉴 룩 라인(New Look Line)<sup>49)</sup>이나 19세기 복식이 재현되어 부분적인 입체와 전체적인 입체의 형태가 건축적인 입체조형미로 표현된다. 특이할 만큼 여성적이며 화려함과 관능미, 잘 정돈된 밸런스가 특징인 그림 1-4의 Valentino<sup>50)</sup>는 Gustav Klimt<sup>51)</sup>의 회화적인 요소를 복식의 면 분할과 트리밍을 이용하여 평면적인 표현을 한다.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것은 주로 장인기질의 오랜 숙련을 통해서 손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재단적인 테크닉이 고



(그림 1-1) Emanuel Ungaro, '96 S/S Book Moda



(그림 1-2) Lancetti, '92-93 A/W Book Moda



(그림 1-3) Christian Dior, '96 S/S Book Moda

46) 가재창, op. cit., Vol. 3, p.3008.

47) Ibid., Vol. 2, p.2100.

48) Ibid., Vol. 6, p.6082.

49) \_\_\_\_\_, 「세계 패션 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도서출판 시대, 1989, pp.28-29.

뉴룩라인 : 화관 또는 8라인이라 불리는 곡선의 어깨선, 가는 허리, 활짝 벌어진 롱플레어 스커트의 라인과 A라인, H라인, Y라인 등의 일련의 Dior의 새로운 실루엣.

50) 가재창, op. cit., Vol. 2, p.2096.

51) Gustav Klimt : (1862~1918) 오스트리아의 비인 분리파(Vienna Secession-오스트리아의 조형 예술가 연합)의 상징주의 화가





(그림 1-4) Valentino,  
'92-93 A/W Book Moda



(그림 1-5) Chanel,  
'96-97 A/W Book Moda



(그림 1-6) Yves Saint Laurent,  
'96-97 A/W Book Moda

유의 라인으로 구축된 경우로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 즉 변형이나 창의적인 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칙적인 심플한 기성복 라인과 아이템에 근접하는 복식형태를 의미하며 기성복 디자인기획에서 흔히 쓰이는 패션트렌드 감성분류인 Modern, Sophisticate, Elegance, Romantic, Ethnic, Country, Active, Manish 등의 패션이미지나 복고패션, 자연물, 기타 주제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5의 Chanel은 현재 Karl Lagerfeld에 의해서 전통적인 Chanel 라인이 재현되며 그의 심플한 도회미를 나타내는 패션이미지<sup>52)</sup>로 실용성, 기능성을 강조하여 트리밍의 비례적 조화와 함께 복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충실히 표현한다. 또한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대표적인 메종은 Givenchy, Nina Ricci, Y. S.L 등이며 그림 1-6의 Y.S.L은 세련된 순수한 라인을 추구하며 남성의 복식을 여성의상에 최초로 도입한 매니쉬(Manish) 엘레강스를 표현한다.

## 2. 디자인 방법과 테크닉의 강조

디자인이란 예술작품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선이나 형을 그의 전체로서의 선의 움직임이나 아름다움에 관련시켜 배치하는 어느 의미에서는 디자인이란 컴포지션(Composition)과 같다.<sup>53)</sup> 즉 디자인이란 목적물에 관한 이미지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이미지의 실체화라고 할 수 있으며 디자인 과정은 이미지의 구체화 과정이다.

이처럼 독창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는 오프 꾸뛰르의 각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감성과 미감을 풍부하고 다양한 이미지의 조형미로 형태화 한다. 오프 꾸뛰르의 독특한 조형미는 객관적인 개인의 감각에 의해 여러 가지 원리로 구성되는 디자인 구성감각에 따른 것이다. 그 구성감각은 하나의 통합감각이며 구성감각이란 어떠한 요소를 어떻게 결합시켜서 어떤 의미(이미지)를 내게 하는가에 있다.<sup>54)</sup>

52) *Fashion*, op. cit., 1995~1996, A/W.

53) 이경성, 「공예 토론」, 서울: 수학사, 1984, p.74.

54) 동정근, 「조형 구성 심리」, 서울: 태림 문화사, 1993, p.147.

즉 오프 꾸뛰르에 있어 창의적인 디자인은 각 디자이너가 이미지를 얻은 것을 형태, 색채, 소재, 구성이라는 여러 조형요소의 결합과 비례, 균형, 리듬, 통일, 강조의 조형원리로 이루어진다. 이 조형원리는 디자인의 조형요소들을 조합시켜 가는 과정의 지침이며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의도를 전체적인 구조(Silhouette)와 부분적 구조(Detail)를 결합<sup>55)</sup>시켜 디자이너의 개인적 구성감각에 의하여 예술성과 상업성의 중간감성의 테크닉적인 묘미를 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구성감각이라 할 수 있는, 총합감각으로서의 통일은 조형요소를 선택, 정리, 완성시키는 조화에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원리이며<sup>56)</sup> 좋은 디자인은 여러 요소를 이용하여 강조점을 만들어 놓는 것으로<sup>57)</sup> 프로 페셔널한 디자이너들인 오프 꾸뛰르 디자이너들은 여러 조형원리를 복합하여 총합감각이라 할 수 있는 통일감과 디자인에다 개성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강조원리를 선택,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성적인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독특한 조형미를 이루는 특성은 각 디자이너들이 선택하는 특징적인 조형요소와 함께 선호하는 디자인 원리와 그 원리를 강조하는 테크닉에 있다. 이러한 것은 수리적인 계산이 아니고 개인의 미감에 의한 것으로 특이한 재단법, 특정직물, 컬러에 대한 선호와 면 분할, 복합 아이템(Item)의 선택, 디테일과 트리밍의 활용, 정제된 라인의 재단과 재봉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디자인적 특성 등으로

나타난다.

조형예술의 순수시각적 요소들 가운데 공간 규정상으로 파악되는 형태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sup>58)</sup> 일반적으로 조형예술 분야에 있어서 사물의 형태분류는 윤곽, 내부형, 구조형으로 전개할 수 있다.<sup>59)</sup> 본 연구에서는 선택된 조형요소중 형태를 중심으로 각 디자이너들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며 형태분류는 심플라인의 형태, 평면적 형태, 입체적인 형태로 나누고자 한다.

심플라인 형태는 디자인 변형이나 형태구성이 아닌 가장 전형적인 심플한 복식 실루엣에 정착적이고 기본적인 디테일이나 트리밍이 부가되는 것을 말한다. 그림 2-1의 Chanel은 단추나 브레이드(Braid)를 이용한 트리밍적인 특징과 함께 그 구조의 심플함과 기능성으로 비례 감각의 Chanel 라인 형태를 이루었으며<sup>60)</sup> 그림 2-2의 Renato Balestra는 자수나 상감등의 장식적인 트리밍<sup>61)</sup> 절제있는 심플한 라인의 형태에 리듬감으로 표현된다.

평면적 형태란 재단법, 면 분할, 디테일, 트리밍 등을 이용한 부분변형의 평면적인 형태를 말한다. 복식의 윤곽선은 인간이 옷을 입은 상태인 3차원적 형태에 대한 2차원적 즉 평면적 해석을 의미하는 것<sup>62)</sup>으로 평면적인 형태라는 것은 평면적인 구조의 요소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변형이라는 것은 그러한 요소가 정착적 나열이나 부가가 아닌 개인의 개성으로 재구성된 것을 의미하면서 일반적인 복식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림

55) 진성모, "Fashion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7, p.74.

56) 이호정, 「복식 디자인」, op. cit., p.151.

57) Ibid, p.160.

58) 「미학, 예술학 사전」, 서울: 미진사, 1989, p.316. 김민자,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 Vol. 17-1, 1993, p.105에서 재인용

59) 김민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loc. cit.

60) Fashion, op. cit., 1992~1993, A/W.

61) Ibid, 1991~1992, A/W.

62) 김민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loc. cit.

2-3의 Versace는 기하학적인 선의 정제나 강렬한 컬러의 혼합으로 언밸런스 커팅의 귀재<sup>63)</sup>로 알려져 있으며 컬러 배색, 면 분할의 균형있는 비대칭의 형태를 이룬다. 그림 2-4의 Gai Mattiolo는 자수, 비즈 등의 트리밍적인 요소<sup>64)</sup>를 면 분할에 적용시켜 균형미있는 비대칭의 테크닉을 형태화한다.

입체적인 형태는 부분 혹은 전체 형 자체를 입체로 구성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형이나 비정형적인 입체적인 형태로 재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2-5의 Christian Dior는 기하학적인 볼륨, 엄격한 형을 만드는데 성공한 귀재<sup>65)</sup>로서 일반적으로 부분적인 입체는 디테일을 강조하며 전체적

인 입체는 직물의 복합이나 직물의 볼륨으로써 균형을 잡는다. 그림 2-6의 Thierry Mugler는 실루엣과 소재를 중요시하는 디자이너로서 미래 지향적 모던과 아방가르드한 발상<sup>66)</sup>을 주제 그대로 형태화하며 주로 허리선에서 비대칭의 커팅선을 활용한다. 그림 2-7의 Sarli는 정제된 라인과 조화있는 완벽한 볼륨의 균형<sup>67)</sup>을 표현하며 재단법의 변형이라는 독특한 부분적인 형태를 추구한다. 그림 2-8의 Christian Lacroix는 바로크(Baroque) 취향이라고 불리워지는 장식주의<sup>68)</sup>로서 그는 컬러, 직물, 트리밍, 디테일, 형태의 다양한 요소를 혼합하여 조화로운 리듬을 살려주는 입체적인 형태를 창조한다.



(그림 2-1) Chanel, '89-90 A/W Book Moda



(그림 2-2) Renato Balestra, '96-97 A/W Book Moda

63) 가재창, op. cit., Vol. 4, p.4034.

64) Fashion, op. cit., 1996, S/S.

65) 가재창, op. cit., Vol. 2, p.2013.

66) Ibid, Vol. 2, p.2040.

67) Collezioni - Alta Moda, Zanfi Editori, N. 18, 1990~1991, A/W.

68) 가재창, op. cit., Vol. 3, p.3023



(그림 2-3) Versace,  
'97 A/W Book Moda



(그림 2-4) Gai Mattiolo,  
'97 S/S Book Moda



(그림 2-5) Christian Dior,  
'92-93 A/W Book Moda



(그림 2-6) Thierry Mugler,  
'97 S/S Book Moda



(그림 2-7) Sarli, '96 S/S Book Moda



(그림 2-8) Christian Lacroix,  
'91-92 A/W Book Moda

#### IV.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특성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 특성은 표현의 특성과 형태의 특성으로 나누어 관련 서적<sup>69)</sup>·<sup>70)</sup>과 전문 잡지<sup>71)</sup>·<sup>72)</sup>를 통하여 고찰한 결과를 <표-1>, <표-2>로 정리하였다.

표현의 특성은 표현의 종류와 표현의 방법으로 나누며 표현의 종류로는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것으로 분류했다. 표현의 방법은 추상적인, 재현적인 방법으로 구분했으며 형태의 특성은 심플라인 형태, 평면적인 형태, 입체적인 형태로 나누었다. 관련서적에서는 디자이너의 특성을, 전문잡지에서는 트렌드적 특징과 조형요소와 조형원리를 이용한 디자인적인 컨셉을 추출하였다.

##### 1. 표현의 특성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서는 파리에서 Emanuel Ungaro, Hanae Mori, Lapidus, Luis Feraud 로마에서는 Gattinoni, Lancetti 등이 속한다.

장식의 풍요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Ungaro는 주로 꽃무늬의 직물 자체가 주제가 되어 드레이프(Drape)나 패치워크(Patch Work) 등으로 장식적인 표현을 하며 Hanae Mori는 나비나 꽃을 동양적인 직물나염의 재현적인 표현을 하고 Lapidus는 프레타·포르테 라인에 비중을 두는 메종으로서 에콜로지(Ecology)에 대한 주제를 새로운 직물에 응용하고 있다. 낭만파 화가이기도 한 Luis Feraud는 꽃이나 그대픽 프린트 직물에다 검정, 보라, 빨

강의 3색의 배색을 즐겨쓰고 회화적이며 환상적인 표현을 하고 Gattinoni는 아방가르드 이미지를 특색있는 나염이나 직물의 꼬임, 엮음 등의 직물변형으로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Lancetti는 에스닉 주제의 회화적 프린트 소재로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한다.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서는 파리에서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Jean Paul Gautier, Jean Luis Scherrer, Thierry Mugler, Valentino, Versace 등이 로마에서는 Sarli, Renzo Riva, Gai Mattiolo 등이 이 분류에 속한다.

'96 A/W까지 Dior의 주임 디자이너였던 Gianfranco Ferré는 Dior의 뉴 룩 라인이나, 에스닉, 화가 등의 주제를 면 분할, 디테일, 트리밍 등의 다양한 요소를 복합 응용한 평면, 입체의 건축적인 계산된 구조미로 재현한다. 19세기 복식을 주제로 한 Lacroix는 다양한 패턴의 프린트, 혼합된 컬러를 시각의 풍요와 트리밍 등 장식과다의 특이한 형태로 재현하며 Jean Paul Gautier는 의상구조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와 기묘한 주제를 덧붙임, 늘어 뜨리기 등의 인위적인 재단의 변화를 통해 평면적인 형태로 재현한다. Bernardo Perris가 주임디자이너인 Scherrer는 복고패션, 에스닉 주제를 현대적이면서 낭만적인 색시한 여성미로 표현하며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적인 입체의 형태로 표현한다. Valentino는 복고패션, 화가, 에스닉 주제를 복식의 면 분할, 트리밍 등으로 도회적인 감각의 부드러운, 평면적인 형태로 재현한다. Versace는 복고패션, 그리이스, 스페인 등 에스닉 주제를 컬러혼합과 배분, 면 분할 등으로 평면적인 형태를 다양한 요소의 이질적인 이미지로 조화시키는 컨트라스트(Contrast) 기법으로 표현한다. Sarli는 모던, 쉬크(Chic)한

69) 가재창, op. cit., Vol. 1~Vol. 6.

70) \_\_\_\_\_, 「세계 패션 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op. cit., pp.1~pp.172.

71) *Book Moda - Alta Moda*, op. cit., N. 11-N. 29.

72) *Collezioni*, Zanfi Editori, N. 12-N. 18.

패션이미지로 자연스런 라인을 살리는 특이한 재단법의 이중 변형으로 부분적인 입체의 형태로 표현한다. Riva는 로맨틱 여성미를 이중칼라(Collar), 이중소매 등의 디테일 변형의 형태로 표현한다. Gai Mattiolo는 무대의상 같은 화려함과 섹시함을 모던하게 표현하며 비즈, 이질적물의 복합, 면 분할, 트리밍 결합 등의 형태로 표현한다.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서는 파리에서 Andre Odicini, Chanel, Givenchy, Nina Ricci, Pierre Balmain, Torrente, Y.S.L 등이 로마에서는 Andre Laug, Furstenberg, Raffaella Curiel, Renato Balestra, Rocco Barocco 등이 있다.

Andre Odicini는 쾌활한 섹시(Sexy) 엘레강스의 이미지이다. 그의 라인은 쉬크하다. 검정, 짙은 갈색, 흰색, 은색 등을 즐겨 쓰며 동색의 타 직물 결합으로 우아한 원숙미를 보이는 심플한 형태이다. Chanel은 Coco Chanel 라인을 재현하며 심플한 도회미의 정제된 라인에 브레이드를 이용한 트리밍이 특징인 불멸의 Chanel 라인을 구현한다. Givenchy, 그는 엘레강스의 진수를 알고 있다. 일체의 트리밍과 디테일조차 절제되어 있으며 모던한 색채감각은 형태의 품격을 더한다. Nina Ricci는 자연물, 에스닉 주제를 남성적인 라인에 디테일의 컬러 컴비네이션으로 적용시키는 유니 섹스(Uni Sex) 엘레강스로 표현한다. Pierre Balmain은 Oscar de la Renta에 의해 복고패션의 주제로 재현되며 정리된 디테일과 트리밍의 클래식 라인을 나타낸다. Torrente는 파리 오피 꾸뛰르중 가장 기성복적인 매종이며 복고패션이나 에스닉 주제를 약간의 직물 컴비네이션과 여성적인 도회미로 믹스한 현대미를 표현한다. Y.S.L은 순수한 라인과 세련됨으로 매니쉬 엘레강스를 추구하며 단색 위주의 그의 컬렉션은 정제된 라인을 돋보이게 한다. Andre Laug는 이탈리아 알타 모다 중 가장 기성복적인 라인을 갖고 있으며 도회적 페미닌을 나타낸다. Furstenberg는 여성적 댄디(Dandy)

엘레강스로 비교적 절제된 라인과 디테일, 트리밍의 특징과 여유있는 실루엣의 원숙한, 풍성한 여성미를 표현한다. Raffaella Curiel은 자수와 트리밍의 분별있는 풍부함과 장식적인, 클래식 엘레강스로 원숙한 여성미를 나타낸다. Renato Balestra는 실용적인 옷을 추구하며 자수와 꽃무늬, 장식적인 디테일과 도회적인 컬러로 로맨틱한 페미닌의 이미지에 접근한다. Rocco Barocco는 꽃, 자수, 비즈의 트리밍적인 요소가 적용되어 있는 부드럽고 유혹적인 현대미가 있는 섹시 페미닌이다.

고찰 결과로는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서 파리는 재현적으로 로마는 추상적인, 재현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며 특히 Ungaro와 Lancetti는 직물 자체가 주제가 되는 방법을 이용하며 Gattinoni의 새로운 직물의 적용법 또한 신선하다.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은 파리에서 거의 재현적인 방법을 로마에서는 추상적인 방법을 쓴다. 대다수 디자이너들이 재단법, 면 분할, 디테일, 트리밍 등을 이용한 형태표현을 하지만 Gautier의 인위적인 재단법에 의한 복식구조의 응용과 Versace의 컬러혼합 배분은 특이하다. 그리고 파리의 Dior, Lacroix, Scherrer, Thierry Mugler 등은 입체적인 형태 Versace, Gautier, Valentino는 평면적인 형태로 표현하고 Gai Mattiolo, Riva는 평면, Sarli는 부분적 입체 형태로 표현한다.

패션트렌드의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파리에서 추상적, 재현적 방법을 혼용하며 로마의 디자이너들은 거의 추상적인 표현을 한다.

고찰된 파리와 로마의 오피 꾸뛰르 디자인의 표현의 특성을 요약하면 파리는 주제를 직물에 표현하는 것 보다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거나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매종이 많으며 대다수가 주제 자체에 충실한 재현적인 표현을 하나 패션 트렌드를 주제로 하여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매종은 그 주제표현의 추상성 때문에 재현적인 혹은 추상적인 방법의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한다. 로마는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거나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는 것보다 패션트렌드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메종이 다수이며 세 분류 모두에서 주로 추상적인 표현을 하고 유일하게 한 메종이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할 때 재현적인 방법을 쓴다.

## 2. 형태의 특성

심플라인의 형태는 파리에서 Chanel, Givenchy, Lapidus, Nina Ricci, Pierre Balmain, Torrente, Ungaro, Y.S.L 등이며 로마에서는 Furstenberg, Laug, Lancetti, Raffaella Curiel, Renato Balestra, Rocco Barocco 등이다.

Chanel은 그 구조가 갖는 실용성, 기능성으로 단추, 브레이드를 이용한 트리밍과 정제된 디테일의 비례감각으로 Chanel의 독특한 형태미를 나타낸다. Givenchy, 그의 옷은 항상 균형의 재복이었다. 균형있는 라인의 심플, 엘레강스로 무익한 가장자리와 장식을 배제했다. Lapidus는 주제를 디테일적 요소나 실 자체로 만들어서 심플한 라인에 리듬감을 준다. Nina Ricci는 연구된 디테일로 꽃무늬, 원색적인 컬러 컴비네이션과 함께 프릴, 리본 등이 클래식 스타일에 리듬감을 더한다. Pierre Balmain은 완벽한 재단, 세련된 심플리티를 추구하며 주머니, 칼라등 적당한 디테일의 비례감각으로 절제된 형태를 가진다. Torrente는 과장된 옷을 싫어한다. 약간의 직물 컴비네이션과 열정적인 컬러가 심플한 라인에 리듬감을 준다. Ungaro는 '96/97 A/W이후 Ferregamo의 영입으로 기성복 라인의 딱딱함이 보이나 그의 전형적인 라인은 심플한 형태의 과다장식이다. 그의 심플한 라인은 여러가지 직물과 컬러의 특이한 조화, 자수와 드레이프 등으로 리듬감을 꾀한다. Y.S.L은 프랑스 모드의 정통파로서 완벽한 재단과 비례감각의 디테일을 통하여 과장되지 않은 형태를 추구한다. Furstenberg는 타직물 복합이나 드레이프, 리본

등으로 단조로운 실루엣에 리듬감을 주며 절제된 트리밍으로 여성적 단디 엘레강스의 형태를 추구한다. Laug는 재단의 깨끗함과 금실같은 장식적인 트리밍으로 리듬감을 준다. Lancetti는 단순한 실루엣에 디테일은 절제되어 있고 에스닉 직물의 풍성함과 약간의 트리밍으로 리듬감을 준다. Raffaella Curiel은 세공미가 있는 자수의 트리밍으로 클래식 엘레강스에 풍성한 리듬감을 더한다. Renato Balestra는 프레타-포르테 라인이 없으며 단순한 실루엣에 자수, 꽃무늬, 장식적인 디테일, 상감등의 조화된 혼합미로 리듬감을 준다. Rocco Barocco는 몸에 맞는 실루엣의 섹시 페미넌으로 꽃, 자수, 비즈, 드레이프 리듬감을 나타낸다.

평면적인 형태는 파리에서 Andre Odicini, Gianni Versace, Hanae Mori, Luis Feraud, Valentino 등이며 로마에서는 Gai Mattiolo, Gattinoni, Lorenzo Riva 등이 있다.

Andre Odicini는 완벽한 재단을 면 분할과 대칭적인 드레이프, 자수, 동색의 타직물 복합으로 원숙한 쉬크의 미를 나타내는 대칭균형의 감각을 나타낸다. Gianni Versace는 '95/96 A/W이후부터는 심플, 아방가르드 경향을 보이나 기하학적인 균형있는 라인과 언밸런스 커팅의 배색과 면 분할을 형태화 한다. Gai Mattiolo는 이질소재 복합의 면 분할에 풍부한 비즈, 자수, 화려한 컬러 컴비네이션 등이 장식적으로 부여되어 비대칭라인에 쓰여진다. Gattinoni는 볼륨감은 있으나 입체의 형태는 아니며 주로 직물변형이나 특이한 직물구성, 나염등으로 아방가르드한 이미지에 암시적인 긴박한 리듬감을 준다. Hanae Mori는 배치가 잘 된 연구된 라인으로 패치 워크, 드레이프, 손세공의 풍부한 디테일과 트리밍으로 리듬감을 준다. Luis Feraud는 환상적인 컬러풀한 색채, 다양한 트리밍의 사용, 그래픽 직물을 디테일에 적용시킨 배색과 면 분할 등으로 리듬감을 준다. Valentino는 화려하고 관능적인 여성미를 잘 정돈된 밸런스로 형태화 한다. 상감, 자수, 리본이 자주 쓰이며 이

러한 트리밍은 동색의 타직물이 주는 원숙미의 기교와 더불어 이미 화려하고 풍부한 직물이다 리듬 감보다는 포인트를 주는 균형으로 작용한다. Riva는 칼라, 소매 등의 증복이나 재단법 등으로 입체적인 디테일을 형태화하고 자수나 리본 등으로 리듬감을 주어 로맨틱 페미닌의 이미지가 있는 형태를 만든다.

입체적인 형태는 파리에서 Christian Dior, Christian Lacroix, Jean Paul Gautier, Jean Luis Scherrer, Thierry Mugler 등이며 로마에서는 Sarli가 속한다.

Christian Dior는 기하학적인 볼륨, 엄격한 형을 만드는데 성공한 귀재로서 건축적인 조형미와 안정된 비대칭라인에 능하며 부분적 입체일 경우에는 칼라, 소매 등의 디테일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입체일 경우는 이질직물의 볼륨으로 균형을 잡는다. Christian Lacroix는 형태의 유일함과 시각의 풍요와 과다장식의 다양한 요소를 복합시켜 리듬감을 준다. Jean Paul Gautier는 인위적인 재단법의 응용으로 트임이나 드레이프로 부분적 입체의 대칭라인을 구사한다. Jean Luis Scherrer는 풍부한 금박과 자수, 고품격의 컬러선정, 직물과 디테일을 강조하는 남성적인 아이템에 여성미를 부가하고 대담한 비대칭 라인을 쓰기도 한다. Thierry Mugler는 특이한 주제의 형태에 다양한 트리밍 요소를 쓰며 허리부분을 강조하고 여밈, 끝단 처리에서 입체적인 비대칭라인을 즐겨 사용한다. Sarli가 그려내는 조형은 묘기에 가깝다. 확실히 정제된 라인, 조화있는 볼륨의 균형으로 소재와 조형미를 통해 여성다움을 나타낸다. 여밈, 자연스런 끝단처리에서 부분적 입체의 언밸런스 감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고찰 결과로는 심플라인 형태에서 파리는 균형보다는 비례나 리듬감각으로 로마에서는 주로 리듬감각으로 개인적 특성을 부각시킨다. 라인만을 가지고 심플한 형태의 절제된 균형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명성있는 Givenchy는 그 완벽한 볼륨을

구성하기 위해 아름답게 떨어지는 소재 즉 새틴(Satin) 같은 중량감있는 소재를 흔히 사용한다.

평면적인 형태에서 파리와 로마는 비례보다 일반적으로 균형과 리듬 감각의 특성을 나타내며 Valentino의 여러 트리밍 요소가 리듬이 아니라 균형감각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과 로마의 신진 디자이너 Gai Mattiolo의 안정된 라인의 비대칭 균형감각이 돋보이며 Versace의 컬러 배색에 의한 분할과 비대칭 라인도 특징적이다.

입체적인 형태는 파리에서 비례, 리듬보다는 균형감각으로 형태화되며 Gautier를 제외한 디자이너들이 입체적인 형태의 대칭, 비대칭라인을 혼용하고 있다. 로마 디자이너 중 조형감각이 가장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Sarli는 재단법의 변형으로 비대칭의 부분적 입체를 독특하게 형태화한다. 입체적인 형태와 컬러, 직물, 디테일 등과 더불어 다양한 트리밍 요소로 리듬을 나타내는 파리의 Lacroix 역시 복합적인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고찰된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을 요약하면 파리는 심플라인의 형태가 많고 평면적인 형태, 입체적인 형태가 다양하게 활용되나 평면적인 형태에 비해 입체적인 형태를 활용하는 비중이 더 많다. 특히 입체적인 형태를 구축하고 다시 여러요소의 리듬을 혼합 강조하여 조화된 다양한 장식의 복합미를 이루는 Lacroix의 조형감각은 과히 독보적이라고 보아진다. 로마의 형태적 특성은 대다수 메종이 정칙적인 디테일, 트리밍을 부가하는 리듬감각을 활용한 심플라인 위주의 형태를 추구하며 부분변형의 평면적 형태가 비교적 많고 유일하게 Sarli에 의해 균형감각의 부분적 입체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Valentino, Versace는 파리 오프 꾸뛰르에 참가할 뿐 이탈리아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므로 이탈리아적 성향으로 판단했다.

## V. 결 론



<표 1> 표현의 특성

		파 리	로 마
주제해 를 표현 식물 에	추상적 (기하, 추상, 비구상)		• Gattinoni
	재현적 (자연, 역사)	• Emanuel Ungaro • Hanae Mori • Lapidus • Luis Feraud	• Lancetti
주제해 를 표현 형태 에	추상적 (기하, 추상, 비구상)		• Gai Mattiolo • Lorenzo Riva • Sarli
	재현적 (자연, 역사)	• Christian Dior      • Jean Paul Gautier • Christian Lacroix    • Thierry Mugler • Gianni Versace       • Valentino • Jean Luis Scherrer	
주제해 를 실 전 경 적 인 표 현	추상적 (기하, 추상, 비구상)	• Andre Odicini • Givenchy • Y.S.L	• Andre Laug      • Rocco Barocco • Furstenberg • Raffaella Curiel • Renato Balestra
	재현적 (자연, 역사)	• Chanel                  • Torrente • Pierre Balmain • Nina Ricci	

<표 2> 형태의 특성

심플 라인 의 형 태	비 레	• Chanel • Pierre Balmain • Y.S.L	
	균 형 (대칭·비대칭)	• Givenchy	
	리 듬	• Emanuel Ungaro      • Torrente • Lapidus • Nina Ricci	• Furstenberg      • Raffaella Curiel • Laug                • Renato Balestra • Lancetti            • Rocco Barocco
평면 적 인 형 태	비 레		
	균 형 (대칭·비대칭)	• Andre Odicini • Valentino • Versace	• Gai Mattiolo
	리 듬	• Luis Feraud • Hanae Mori	• Gattinoni • Lorenzo Riva

입 체 적 인 형 태	비 례		
	균 형 (대칭·비대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ean Paul Gautier</li> <li>• Christian Dior</li> <li>• Jean Luis Scherrer</li> <li>• Thierry Mugler</li> </ul>	• Sarli
	리 듬	• Christian Lacroix	

오프 꾸뛰르르는 오랜 전통과 역사로 패션 전 분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패션 변혁을 주도한다. 패션에 있어 독창적인 영감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오프 꾸뛰르르의 디자인 세계와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도래할 패션을 추측하는 감성과 창의적인 디자인 방법의 테크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래 오프 꾸뛰르르에는 주임디자이너의 세대교체, 아방가르드 이미지의 영입, 콜렉션을 이벤트(Event)적 행위로 표현하는 경향 등의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디자인적 변화로는 오프 꾸뛰르르의 프레타·포르메화를 들 수 있는데 로마는 알타 모다 출현 당시 수출을 위한 외부지향적 목적과 프레타·포르메 디자이너들의 오프 꾸뛰르르 참여라는 기성복적인 성향을 콜렉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파리는 비대칭균형의 고감도 테크닉<sup>73)</sup>과 창작성을 가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로마보다 훨씬 다양한 예술적인 조형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파리 역시 이전의 오프 꾸뛰르르보다 기능적인 프레타·포르메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덜 예술적인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아무튼 오프 꾸뛰르르와 프레타·포르메가 날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오프 꾸뛰르르의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 오프 꾸뛰르르는 다만 프레타·포르메 중에서 가장 고급스런 한 부분이 될 것이다<sup>74)</sup> 그러므로 미래에는 컨셉션, 프레타·포르메, 라인즈 비스,

오프 꾸뛰르르 외 또 다른 장르로서 오프 꾸뛰르르의 예술적 세계를 보여주는 라인이 탄생하거나 콜렉션 자체가 메종 디자이너들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한 장르가 될 수 있음도 예견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오프 꾸뛰르르 디자인의 조형미를 표현과 형태의 특성으로 나누어 파리와 로마의 메종별 디자인 특성을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형태의 특성중 다양한 개인적 조형감각을 파악할 수 있는 디자인 조형원리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파리와 로마의 오프 꾸뛰르르 디자인의 특성에 관한 고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현의 특성에 있어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메종은 파리와 로마에 있어 그다지 많지 않지만 이미 특정직물의 특징이미지를 가지고 디자인 작업을 하므로 확실한 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제를 형태에 표현하는 메종은 파리와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조형감각이 뛰어난 정평있는 디자이너들이나 신진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활용된다. 패션트렌드의 주제를 전형적인 실루엣에 표현하는 파리와 로마의 메종은 오프 꾸뛰르르의 전형적인 조형미라 할 수 있는 심플, 엘레강스, 페미닌의 이미지를 아직 전수하고 있으며 로마는 파리보다 덜 다양한 패션이미지와 추상적 방법에 국한된 표현을 한다.

요약하면 파리와 로마는 두곳 다 주제를 형태에 의해 표현하거나 주제를 전형적인 복식 실루엣에 치중하여 표현하는 공통점을 보이며 파리는 거의

73) 이호정, 「복식 디자인」, op., cit., p.143.

74)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op., cit., p.341.

주제를 재현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로마는 주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파리는 주제를 복식 실루엣에 표현하는 경우 재현적인, 추상적인 표현을 혼용함으로써 로마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 표현을 하고 로마에서 세 분류 모두 추상적 표현을 하는 다른 메종과는 달리 주제를 직물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서 재현적 표현을 하는 메종이 있다.

둘째, 형태의 특성에 있어서 파리와 로마는 심플라인의 형태가 많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단순한 심플라인이 아닌 재단 테크닉에 의한 고도로 정제된 비례, 균형감각의 심플한 라인을 추구하며 로마는 심플한 라인에다 정칙적인 디테일이나 트리밍의 리듬감각을 부가하는 특성을 보인다. 부분적 변형의 테크닉이 활용되는 평면적인 형태에서 파리와 로마는 모두 단순한 비례감각 보다 균형이나 리듬감각을 선호한다. 그러나 파리는 리듬과 균형감각의 평면적인 형태를 로마는 균형감각을 위주로 하는 라인변형의 평면적인 형태에 치중하며 로마는 파리에 비해 평면적인 형태의 특성을 가진 메종이 많다. 정형과 비정형의 입체적인 형태의 재구성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는 파리에서 많으며 조형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나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이 활용되며 로마에서는 한 메종에 의해 부분적 입체 형태를 볼 수 있다.

즉 파리와 로마의 오뜨 꾸뛰르 디자인의 형태적 특성은 파리와 로마 두곳 다 전통적인 오뜨 꾸뛰르의 심플한 라인의 복식형태를 선호하는 메종이 많은 공통점과 파리는 형 자체에 대한 변형과 재구성의 균형감각을 요구하는 입체적인 형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 로마에서는 라인의 부분변형과 디테일, 트리밍을 활용하는 리듬감각의 평면적인 형태 조형미를 보인다.

본 연구는 주제의 광범위함과 프로페셔널한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디자인 방법 분류와 컨셉 추출이라는 감각적인 면으로 다소 한계점

이 있으나 감성적인 분야라 할 수 있는 창작디자인의 방법을 이해하고 이론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실기교육이나 실무작업의 활용에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김민자, “예술로서의 의상디자인”, 가정학회지, Vol. 27-2, 1989.
- 2) 김민자, “현대 패션에 표현된 한국 복식의 전통미”, 한국의류학회, 1993.
- 3) 김미옥, “오뜨꾸뛰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0.
- 4) 김은리, “Haute Couture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논문, 1982.
- 5) 권혁미, “20세기 MODE의 조형성 표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8.
- 6) 이인성, “일상적으로 의복에 사용되지 않는 소재와 테크닉에서 살펴본 의상창작과 예술”, 한국의류학회지, Vol. 20, No. 1, 1996.
- 7) 임창빈, 김관배, 정도성, “입체디자인에 있어서 이미지 창출 및 전달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연구논문집.
- 8) 장동림, “초현실주의 예술의 조형성과 Schiaparelli의 의상디자인”, 대한가정학회지, Vol. 28-2, 1990.
- 9) 진성모, “Fashion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 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10) 최은정, “현대 미술의상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7.
- 11) 가재창, 「패션 Designer's」, 서울 : 정은 출판사, 1991.
- 12) 辻弘, 杉山明博, 김인권역, 「조형 형태론」, 서울 : 미진사, 1986.
- 13) 김춘일, 박남일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서울 : 미진사, 1991.
- 14) 디디에 크롬바크, 우종길 역, 「패션의 역사」,

- 서울 : 도서 출판, 1994.
- 15) 동정근, 「조형 구성 심리」, 서울 : 태림 문화사, 1993.
- 16) Bryan Lawson, 윤장섭역, 「디자이너의 사고 방법」, 서울 : 기문당, 1988.
- 17) \_\_\_\_\_, 「세계 패션 디자이너 131인의 패션철학과 작품세계」, 서울 : 도서출판 시대, 1989.
- 18) 이경성, 「공예 통론」, 서울 : 수학사, 1984.
- 19) 이호정, 「복식 디자인」, 서울 : 교학사, 1987.
- 20) 이호정, 「복식 산업론」, 서울 : 유신 문화사, 1984.
- 21) *Book Moda-Alta Moda*, Agenzia Italiani di s.p.a., N. 11-N.29.
- 22) *Collezioni-Alta Moda*, Zanfi Editori, N. 12-N.18.
- 23) *Fashion*, Edizioni Hennessen Italia s.r.l., 1004-N.1006.
- 24) Helena, D.P. and C.S' Mueller, *Marketing Today's Fashion*, New York : Prentice-Hall, 1980.
- 25) Jarnow Jeannette A. Beatrice Juddl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1.
- 26) Mary D. Troxell, *Fashion Merchandising*, New York : Mc Grow-Hill Book Company, 1976.

## ABSTRACT

### Characteristics of the Haute Couture Design in Paris and Rome

In this research, first of all, the special features of Haute Couture design world (1990~1996) prevailed in Paris and Rome are investigated, and additionally the understanding of collection concept and design structure analysis

are performed to show the various methodology of creative design. Expression method and design method are the main criteria in analyzing,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Most of designers in Paris and Rome express the traditional costume style. Paris designers are focusing on the expression of design morphology through the abstraction and reappearance without being confined to theme expression ; Rome designers are expressing their main ideas utilizing the fashion image as their theme in lieu of expressing the design morphology.

2. Most of the designers in Paris and Rome are using simple lines for their design. Paris designers prefer the plastic design based upon formal and symmetrical balance of informal and asymmetrical balance to the partial transformation design ; Rome designers are enjoying rather the partial transformation using the detail and trimming than the plastic design.